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전화: 02-555-1946
 이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https://band.us/band/76254576>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nuartalumni/>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2024
4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S-아트페스타 2024' 개최

미술축제 S-아트페어 2024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S-아트페스타 2024'가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전갤러리 전관에서 개최됐다. S-아트페스타는 서울대미대동문전 'S-아트페어와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 '베리타스미술상전', 그리고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등 3개 전시로 구성된 총 125명의 작가가 참여한 미술축제의 자리였다. 4월 2일 오후 4시에 진행된 개막행사에서 본회 권영걸 회장(69음미)은 "동문 가운데 수준급의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다. 감춰진 보석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숨은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그분들을 영입해 함께 전시를 해보자는데 의견이 모여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고, "우리는 4000여명 가까이 되는 미술대학 동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서울 중심으로 이뤄졌던 전시 한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예술이란 경계와 허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전, 광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동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S-아트페어 2024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S-아트페어 2024'는 총 55명의 미술대학 동문들이 참가하여 젊은 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성기점(58회화) 동문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들을 추상적인 색면과 선으로 표현한 '계절의 향기-새벽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민정기(68회화) 동문은 봄의 아트페어에 걸맞은 '선암사 목련(◀사진) 작품 출품하여 목련 봉오리를 통해 생명의 탄생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채현교(90서양) 동문은 원형캔버스에 신비한 비단속 풍경을 그린 'Fireworks festival' 등의 작품을 출품하여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김병중(74회화) 동문의 잘 알려진 '화홍산수' 작품이 예약구매가 되어 성공적인 아트페어의 첫 신호를 알렸다. 이어 김소선(63회화) 동문이 출품한 서정적인 분위기의 '코스모스'와 이광택(80회화) 동문 특유의 섬세하고 아기가자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동화적인 작품들 모두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김명은(17동양) 동문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좋은 가격으로 선보여 구매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회소식



베리타스미술상전 2024

‘베리타스미술상전은 모교 졸업전시 동창회장상(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이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후배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미술상이다. 2020년까지 본회 동창회장상은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으나, 베리타스미술상은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전시를 통한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졸업 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다양한 동문들과 교류하기에 장학금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회를 맞은 이번 베리타스미술상전에는 고수정(19조소), 권민주(19서양), 나희연(19산디), 박소영(18시디), 배인규(17도자공예), 유지원(19동양), 윤은서(17금속공예) 작가가 출품하였다. 권민주 작가는 “충돌과 파괴가 지나가 변형되어버린 대상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에게서 동반되는 신체적인 감각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번 작품들은 그러한 감각을 담은 이미지들 - 예컨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차체가 부서진 풍경, 혹은 직접적인 신체의 상흔이 드러난 모습이 담긴 장면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토대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다만 그러한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다시금 옮겨내는 과정에서, 이미지들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감

각들에 대해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정보나 단서들, 예컨대 색이나 형 같은 것들을 반전시키거나 일그러뜨리는 등의 변형을 가하여 화면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렇게 변형된 이미지 안에서도 원래 원본이 되는 장면이 가지고 있던 어떤 통증의 감각, 파괴의 감각 같은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지, 그것이 되려 극대화될 수 있는지, 혹은 전혀 다른 감각들로 치환이 되는지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실험해본 작품들이다.”고 설명했다. 배인규 작가는 “내 일은 손에 익은 재료를 잘 깎아서 장난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책상 위에 동물인형을 두고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뭐가 더 예쁘게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이 내 작업 내용의 전부다.(◀사진) 좋은 작업의 정도는 하는 이나 보는 이나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있다는 생각이다. 내 태도 역시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어서 더 예쁘고 갖고



싶고 그런! 장난감을 싸들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은서 작가의 작품 ‘영원’(◀사진)은 목과 어깨 위에 착용하는 목걸이다.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4학년 기간 중 가장 오래 진행했던 작품이다. 목걸이의 펜던트와 체인을 이루는 유닛들을 매우 얇은 금속선을 감아 만드는 ‘워빙’ 기법을 활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었다. 작품의 일부분을 보면 그 부분의 작업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이 들 만큼 매 순간 정성들어 만든 작품이다. 미대 졸업전시를 통해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전시 기회를 주신 미술대학 동창회에 감사 드린다. 정성과 노력을 담은 작품을 한 번 더 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기회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숨은예술가들 2024

‘숨은예술가들’은 서울대학교동문 작품전으로, 지난해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프레전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열리게 됐다. 참여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법조인, 정치인, 의료인, 경제인, 교육자,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서울대 동문들이며, 총 62명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 전자현미경 전공을 살려 직접 촬영한 ‘황금개미(Golden ants)’ 사진을 출품한 윤철중(◀사진) 목사는 이번 전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기쁘다.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의 범위를 넓혀 작품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예술계와 타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원원할 수 있는 시도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작품



이 출품되었는데, 화학자로서 대덕연구단지에서 대기업연구소에서 일하고 대학교수로서 연구자의 삶을 살았다는 이관영 작가가 사진 ‘나무처럼’을 출품해 사진이지만 독특한 촬영방법과 캔버스 인화로 회화적 요소를 살려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한 이진희 작가는 가족 편칭 기법으로 제작한 ‘사랑해 내 동생’(◀사진)을 공개했고, 시인 최서림 작가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주제로 그린 회화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서를 활용해 그림을 그



린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은행잎나무’(◀사진), 대학 등에서 통계학을 가르친 이태림 작가의 아크릴화 작품 ‘희망의 봄날을 기다리며’, 원자력병원 정형외과과장으로 의료계에 종사 중인 전대근 작가의 ‘별이 된 양이들’ 등 다양한 작품이 관

람객들을 맞았다.



S-미술아카데미 봄학기 운영

본회(회장 권영걸)가 지난 3월 서울대 동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S-미술아카데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백악미술관에 실기강의실을 마련해 '2024 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시작했다. 봄학기 강좌는 오는 6월 29일까지 15주에 걸쳐 5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좌별 15명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일반인 대상 교육 경력이 많은 동문 강사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화-초.중급(강사 안성규)', '프린트페인팅-자유창작(강사 임철순)', 태블릿PC로 그리는 '유화&수채화(강사 이필두)', '여백과묵향의힐링-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사진) '나의 이야기와그림-그림책 워크샵(강사 곽영권/한성원)' 등 5개 강좌이며, 첫 학기임을 감안해 정원 내 수시모집도 하고있다. 또한 여름방학 특강은 오는 5월 공지할 예정이다.(수강문의 010-8605-8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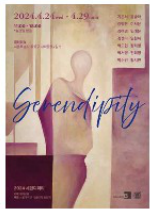
분당서울대병원 '힐링아트' 개최



본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병원 내 갤러리 SPACE-U에서 '힐링아트'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김형주(66회화), 강재희(84동양), 임현하(석사21서양) 동문으로 회원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3인의 작가는 환우분들과 편안한 정서를 나누고자 하는 전시 취지에 맞추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한편 '힐링아트'는 지난해 전시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병원 측 요청으로 4월과 8월, 두 번 개최하게 된다.



Serendipity 2024 개최



본회가 기획한 'Serendipity 2024'이 지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체부동 갤러리B의 초대로 열렸다. 2022년도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서 올해는 각기 다른 경험을 거친 열 넷의 개인이 만나 하나의 전시를 이뤘다. 전시명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 행운 등을 일컫는다. 전시명처럼 다른 매체와 표현방식을 가진 열네명의 작품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24일 오프닝에는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장수남 이사장과 갤러리B 심혜진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시동시(異時同視)를 다녀오며

함재곤 충주시 문화예술과장



이시동시는 다른 시대의 작가들이 같은 장소를 보는 시각이라는 의미로 같은 장소를 다른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연결되는 우리 사람을 조명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 흠날리는 빗꽃 잎이 /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의 전령 빗꽃이 찾아와 수줍게 그림자만 눈송이처럼 피어나던 지난 4월초, 빗꽃엔딩을 흥얼거리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전시회가 열린 서울 신사동 갤러리Pal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2월 서울대미대동창회 분들이 충주를 여행하였고, 그 미술여행을 통해 바라본 충주의 모습들이 화폭에 들어있었습니다. 충주 바람, 탄금호 야상 등 낯설지 않은 제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바라보던 풍경과 작가분들이 그린 그림은 사뭇 달랐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동질감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고민의 실타래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답답할 때 산을 좋아하는 나에게 가끔은 자연이 주는 풍경이 위로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은 그림 속에서 바라본 충주의 풍경이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본 작가님도 혹시 같은 마음이었을거야 하고 속삭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이 느낌!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동시에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각이 교차하며 지금 이곳 시간이 멈춰진 그림 앞에서 작가님과 기억 속 풍경, 그리고 나와 새로운 연결을 느낍니다.

때론 공감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그리고 가끔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따스함과 위로 그것이 바로 이시동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장애청소년후원전 '소확행아트컬렉션' 개최



본회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와 오는 5월 2(목)일부터 8(수)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한전갤러리(1층 2전시실)에서 장애청소년 후원금 마련 '2024 소확행아트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대동문 및 서울대 동문들의 작품 또는 소장품을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장애 청소년들의 미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이다. 후원전인 만큼 특별한인 된 작품들과 소액투자로서 소장 가능한 작품들도 많이 출품된다.

'서울대미술인' 회원할인 연장



본회가 2019년부터 4년간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에는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3년도 신입 동문까지 시각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음악 등 모든 분야의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했다. 본회는 도록의 회원할인기간을 도록 소진 시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 (단 평생회비 또는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게 한함)

- 구매신청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 회원할인 : 5만원(정가 15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모교소식

SNU 10-10 Project 강연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모교 49동 322호에서 존슨앤존슨 로보틱스의 김희주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Beyond the comforts of Human Centered Design'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본 강연은 모교가 주관하는 SNU Art&Design 10-10 Project의 일환이다. 김희주 디자이너는 이날 IDEO(아이디오)의 선임 디자이너로서 얻은 경험과 인간중심디자인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 산업디자인계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한편 김희주 디자이너는 University of Tokyo, Erato Lab, Visiting researcher, Purdu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등을 지냈다.



사진=왼쪽부터 김은형 작가, 나잠수 프로듀서

4월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 진로특강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가 지난 4월 24일에 ZOOM 비대면 강의로 개최됐다. '졸업하면 뭐할래?'는 미술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시리즈로, 여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예술과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강에는 김은형(96동양) 작가와 나잠수(03디자인) 프로듀서가 강의를 맡았다. 김은형 작가는 '작품활동과 진로계획'을 주제로 다양한 레지던시와 전시에 참여하여 쌓아온 국내외 활동과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및 시카고 예술대학(SAIC)에서 공부하고 미국 스킵헨, ISCP뉴욕, 난지 창작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나눴다. 나잠수 프로듀서는 '안정적인 미래와 모험적인 미래'를 주제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허비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간에 대한 강연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학적을 유예하기 위해 몇 차례 대학원 진학을 시도하고 그 사이 떠버린 시간 동안 진정으로 미래에 뭐가 되어야 할지 자신이 없었던 모습과 십수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됐다. 모교는 지난 강의 영상 중 일부를 강연자의 동의를 구해 모교 구성원들에게 링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강연 '삶의 방식으로서의 큐레이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은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최빛나 2025 하와이트리엔날레 큐레이터(◀사진)를 초청하여 강연 '삶의 방식으로서의 큐레이팅'을 개최했다. 예술경영전략 수업 특강으로 기획된 이번 강연에서 최빛나 큐레이터는 전자야자수(electric palm tree)부터 하와이트리엔날레 2025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 보면서 거대담론 혹은 사회적 이상과 교차하는 개인적 탈배움의 과정 및 큐레이팅 실천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나눴다. 한편 최빛나 큐레이터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위치한 '카스코 아트인스티튜트: 커먼스를 향하여(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에서 15년간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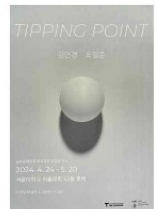
(2008-2023)를 수행했으며 현재 큐레이토리얼 어드바이저로 가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6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2022년 '나타샤' 싱가포르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최빛나 큐레이터가 예술감독 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하와이트리엔날레는 내년 2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하와이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연 'Photography, Illusions, Space'



모교 서양화과는 지난 4월 29일, 74동(예술계복합 연구동) 오디토리움에서 기술기(◀사진) 작가를 초청하여 강의 'Photography, Illusions, Space'를 개최했다. 강연은 서양화과의 수업 '작품연구스튜디오 2-6', '작품연구: 창작의 구조와 연계하여' 기획됐다. 기술기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주제로 작업해왔다. 최근에는 사진의 물성과 그것을 둘러싼 공간, 그래서 파생되는 일루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작업하고 있다. 한편 작가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서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슬레이드 대학교 파인아트 미디어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Portrait, Still life, Landscape'(일우 스페이스, 서울, 2023)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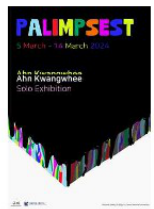
2024 금속공예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전



2024학년도 금속공예전공 석박사 과정 신입생이 모교 52동 로비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석사 과정 신입생 3인(박준혁, 오민서, 장보화)은 전시 'Intro'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선보였고, 박사과정 신입생 2인(김연경, 최일준)은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전시 'Tipping Point'를 진행하고 있다.

우석갤러리

Palimpsest 안광휘개인전



우석갤러리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안광휘(10서양) 동문의 개인전 Palimpsest가 개최됐다. 전시명 palimpsest는 원래의 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쓴 고대문서, 또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판화전공을 졸업했다. 전시 'The Pathetic Rhymes'(2017, 인스턴트루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제13기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2022)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모교 서양화과에서 학과 조교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소식



첨단융합학부 출범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첨단융합학부(학부장 송준호)가 지난 3월 4일 218명의 신입생과 함께 출범했다. 첨단융합학부는 디지털헬스케어·융합데이터과학·지속가능기술·차세대지능형반도체·혁신신약의 5개 전공으로 구성된 학부 과정이다. 3학기 동안 기초역량 강화와 전공 탐색을 거쳐 이들 전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유홍림 총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융합학부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 융합교육의 미래가치를 강조하였다. 지난해 7월 첨단융합학부 신설이 결정된 이후 서울대는 관악캠퍼스 18동과 19동 일대를 리모델링해 첨단융합학부 공간으로 조성했다.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소속 변경과 겸무 형식으로 교원을 확보했다.



'천원의 식사' 아너월 제막식 개최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사장 유홍림)이 지난 3월 13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유홍림 총장과 기부자, 교내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천원의 식사를 위한 모금 사업인 '천원의 식사' 아너월(Wall of Honor) 제막식을 개최했다. 학생식당 한쪽 벽을 차지하게 된 아너월에는 서울대판 '천원의 식사' 모금행사인 '천원의 식사'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참여한 기부자 이름이 새겨졌다. '천원의 식사'는 2015년 6월부터 학교가 식비 일부를 지원해 10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는 서울대 발전재단에서 모금 사업 '천원의 식사'를 시작했다. 지난 3월 8일 기준 총 751건이 약정돼 3억 98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규장각, 특별전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 개최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봉준공초' 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처음 소개된다. 전시회 개최에 앞서 지난 1월 26일 열린 개막식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안내판을 규장각 입구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하였으며, 서울대 김경아 교수(국악과)의 상형산 독주 및 '조선왕조 의궤의 복장을 재현한 취타대의 취타공연'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Let's Roll! 파워플랜트, 롤러장이 되다



서울대학교 68동 제1파워플랜트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롤러스케이트 체험 및 강습 프로그램 '파워플랜트, 롤러장이 되다'가 진행되었다. 파워플랜트는 지난 40년 간 교내의 난방을 공급해온 보일러들이었으나 교내 건물이 개별난방으로 전환된 이후 가동을 멈추었다가, 2022년 7월 문화예술원의 출범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행사 체험은 무료로 진행됐고, (강습에 참여할 경우 강습비 인당 1만 원) 참가신청은 온라인 구글폼으로 접수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이 주관한 본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스포츠진흥원이 협력했으며, 아도니스아를, 오프사이드, 사르봉봉이 후원했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감각의 전환: 눈에서 손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김태균)과 함께 중앙도서관 관장관 1층 관정 갤러리에서 '감각의 전환: 눈에서 손으로' 명화를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 배리어프리티팀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5갤러리에서 주관한 이번 전시에는 시각 장애 학생들이 감상할 수 있는 촉각 미술 작품 6종과 촉각 지도, 시뮬레이터 등 배리어프리 체험 물품 4종이 전시됐다.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식기반 문화예술나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시는 본 사업의 일환인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행사로 개최됐다.

2024 도서관의 날 맞이 책나눔 축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앙도서관 본관 2층 책나눔 코너에서 책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서 중앙도서관이 준비한 1천여 책이 무료 나눔 되었다. 도서관 북카페 도서와 기증 도서 중 장서로 등록하지 않는 자료를 나눔 한 것이다. 축제 참여자는 1인당 5권까지 도서를 가져갈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수요교양강좌



서울대학교박물관(관장 권오영)이 매년 봄, 가을에 개설하는 '수요교양강좌'가 올해도 문을 열었다. 2024년 상반기 수요교양강좌는 '동아시아 속의 고려와 거란'을 주제로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총 8회, 매주 수요일 서울대학교박물관(70동) 강당에서 개최된다. 수요교양강좌는 서울대학교박물관과 관약구정이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으며 수준 높은 강연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요교양강좌는 중세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및 연구자 8명을 초빙하여 구글폼으로 이뤄졌고, 선착순 140명을 모집했다.

총동창회소식



정기총회 개최, 김종섭 회장 재선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3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 및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종섭(66사회사업) 총동창회장이 제30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총동창회 정기총회에는 전통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서울대 동문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학생자치기구의 장, 학군단 후보생 등 재학생 20여명이 초청됐다. 미래 동문들이 재학 시절부터 동창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복을 갖춰 입은 학군단 후보생들이 동창 회기를 들고 입장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서울대 국악과가 준비한 축하공연이 동문들을 환영했다. 김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대 동문들은 70년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동창회 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관악대상시상식 개최, 고광석동문 수상

지난 3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고광석·금난새·류진 동문이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고광석(59회화) 동문은 모교 회화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학사편입으로 법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엔 한일은행에 입행해 근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세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집도 발간했다. 퇴임 후에는 문인화 작가로 예술문화 활동에 매진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고아원에 기부했으며, 자신이 40년 살던 자택을 처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서울대총동창회에 20억원, '이태석 신부의 수녀어린이 장학회'에 10억원, '대전 가르멜 봉쇄 수녀원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금난새 동문은 서울대 작곡과 졸업 후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 지휘과를 수료했다.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 수원시향경기필하모닉·인천시향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공동문은 현직인 성남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총감독으로서 국내 교향악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류진 동문은 비철 금속 소재 산업 및 방위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풍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 107명 국회의원 당선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7명의 서울대 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역구 당선인 92명, 비례대표 당선인 15명으로 전체 300석 중 약 35% 비중이다. 동문 당선인 수는 18대 157명→19대 132명→20대 120명→21대 103명으로 즉 감소하다 22대 10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은 21대 17명에서 22대 18명으로 1명 늘었다. 학위별 당선인은 학부과정 76명, 대학원 7명, 특별과정 24명이었다. 학부 26명, 대학원 수료 1명 총 27명으로 법대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을 냈고, 이어서 사회대 25명, 인문대 7명, 경영대(대학원 포함) 6명, 농생대 4명, 사범대 3명, 공대 2명 순으로 당선인이 나왔다. 특별과정 또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은 당선인이 나왔고, 행정대학원은 대학원 출신 3명, 국가정책과정(ACAD) 출신 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울대학교 나눔가족음악회

- 공연 명 : 2024 서울대학교 나눔가족음악회
- 일시·장소 : 2024년 5월 23일(목) 저녁7시30분 롯데콘서트홀
- 주관·주최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지 휘 : 금난새(음대66)
- 연 주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프로그램 : 추후 공지
- 관람방법
 - 협찬금을 납부하는 서울대 동문계 초대교원권 증명
 - 양식에 맞춰 문자메시지(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or.kr)로 신청 후 협찬금(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납부
 - 신청양식 : ①제목: 나눔가족음악회 ②이름 ③단과대학 입학연도 ④좌석 등급 및 매수 ⑤받으실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 협찬금 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행사명과 본인 이름 기재(예: 음악회홍길동)
 - 협찬금을 납부한 동문계 초대교원권을 등기로 전달
 - 공연 당일 공연장 8층 매표소에서 좌석표로 교환하여 입장
- 【문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599-7704

모교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 일 시 : 5월 13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렉스필드CC(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115)
- 참가범위 : 총동창회 회원
- 진행방법 : 친선팀과 단과대학별 단체전 대항전으로 진행함 (자세한 행사 안내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 참가신청 : 40팀(총160명) 선착순 마감 [성함, 출신대학,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 가 비 : 50만 원 이상을 총동창회에 사전납부 *그린피,카트비,그늘집,점심,저녁만찬 비용 및 참가 선물 제공
- 참가비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협찬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물품협찬 : 총동창회 담당자(02-879-8204)에게 문의
- 문 의 :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 ※ 5월 1일(수)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임원	회장	5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사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년·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D예:김홍도(98동양)

회비입금내역(24.2.29~4.30)

부회장 회비	강인선(73회화) 이부연(71응미) 이혜민(74응미)
이 사 회비	한석란(71조소)
일 반 회비	곽준희(94공예) 민복기(95공예) 오창근(90조소) 전기순(82응미) 최혜인(13동양) 전하루(석20미술경영)
평 생 회비	김선희(68응미) 정희균(85공예)
후 원 금	고광석(59회화) 안필연(80조소) 100만원 김형주(66회화) 20만원, 설화영(74응미) 10만원 정정자(60회화) 5만원
광 고 후 원 금	김소선(73회화) 김춘옥(64회화) 이민주(76회화) 이정희(82조소) 이호백(81응미) 한울회 각 20만원 강창은(09문헌지식정보) 30,000원, 디팩(이한호) 26,000원
작 품 기 증	김선희(68응미), 유중욱(21환경대학원)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또는 유튜브브에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 검색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지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매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실 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찬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누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상가를(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높이	부피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제 9회
일중서예대상
시상식

수상자 추민 艸民 박용철 朴龍高

초대합니다.

2024. 5. 9. (목) 오후 5시

백악미술관 2층 전시실

제 9회 시상식 및 제 8회 수상자 초대전

일중서예대상

제 8회
일중서예대상
수상자 초대전

초대작가 근원 近園 김양동 金洋東

전시기간

2024. 5. 9. (목) - 5. 15. (수)

백악미술관 전관

社團 法人 一中先生紀念事業會

후원광고

동문탐방

고광석(59회화)

지난 3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고광석 동문이 2024년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관악대상수여식 현장을 방문하여 고동문을 만났다.



고광석 동문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자로 나선 김중섭 총동창회장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관악대상수여식 개최 이래 최초로 단상에서 내려와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사진)



관악대상수여식에는 고동문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선후배 및 동기들도 참석했다. 본회 손문자 고문, 정옥란 고문, 김선희 이사, 김소선 감사, 이애자 이사, 이민주 상임부회장은 고동문의 부인인 장민자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사진)

고동문은 재학시절 작품제작은 물론 학회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고동문과 입학동기였던 장상의 동문(59회화)은 회상한다. 장동문은 당시 동기들이 함께 장경궁으로 스케치여행을 갔던 추억도 이야기해 주었다. 미대입학 후 2년간 서양화를 전공한 후 3, 4학년 때는 동양화를 공부하였으므로 이종상 교수, 김민중 신부, 조정송 교수와 가깝게 지내며 장우성, 서세욱, 박세원 교수께 다양한 동양화를 수학하였다. 정옥란(62응미) 동문은 입학당시 고동문이 같은 광주 출신이라고 자신에게 데생도 지도하면서 친절히 대해준 선배로 기억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대 4학년 시절 합창단을 조직해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연계해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동문은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갖고 국문과를 비롯한 타 학과의 수업도 청강을 하면서 미대생 이외의 동문들과도 교류 했다. 사회가 혼란스럽던

그 당시부터 자유, 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김치호(수학과), 변승지(지리학과), 조응래(사학과), 문리대생인 권혁달 동문 그리고 고려대학 등 타 대학 친구들과 7명이 송우회(솔벗 모임)라는 모임을 만들어 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당시 4.19의거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부로부터 배운 천자문을 4세 때 다 떴었던 고동문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당시 광주에서 금산까지 가서 일제와 투쟁하다가 순직했던 제봉 고경명 의병대장의 14대손으로 늘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살아왔다고 한다.



평생을 절약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애국하며 살아온 고동문은 40여 년 살던 자택을 처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서울대총동창회에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 20억원을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쾌척하였다.

“어머니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집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구멍가게를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한 아주머니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하했어요. 거지가 집 앞을 지나가면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상을 차려주곤 하죠.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본받을 게 많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를 본받아 고동문은 ‘이태석신부의 수단어린이장학회’에 10억원, ‘대전 가르멜(봉쇄)수녀원’에 5억원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면서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모아 1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고동문은 미대를 졸업한 후에도 15대1의 경쟁을 뚫고 64년 법대에 편입하여 법을 공부하였고, 이후 한일은행에서 근무하며 법률 세무 상담사례집을 출간하여 뉴욕 싱가포르 등에 3개월간 연수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사례집은 일제시대 대출 문화의 문제점을 당시 현실에 맞춰 고친 것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대치동에 사농았던 땅 위에 연 13.5%의 상호신용금고대출을 받아 아람빌딩을 건축하였고 임차인을 사원으로 변경하여 80%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부인인 장민자 여사는 평소 화훼예술가를 꿈꾸고 실천해 온 낭만주의자로 이러한 고동문의 기부정신을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서 여기고 한편 자랑스러워하면서 계속 뒷받침해 온 분이다.

고동문은 은행에 재직하면서도 꾸준히 문인회를 그려왔으며 강남미협 등에 속하여 전시회도 해 왔다. 부인인 장민자 여사는 “이 양반이 음악도 하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는데,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글 짓는 재주”라고 덧붙었다. 이력을 보니 2002년 강남서예문인회대전 초대 작가 선임, 2008년 대한민국 문인회대전 초대 작가 선임 외 여러 잡지에 다양한 글을 게재한 흔적이 뚜렷하다. 2015년에는 ‘세계 시·수필·명언집’도 편찬했다. 고동문은 앞으로 이십 여 점의 작품을 새로 제작하여 개인전을 가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으며 이 계획이 멋지게 실현될 날을 기대한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늘 인격을 도야하고, 미래지향적인 뜻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삶이 녹록치 않다 보니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합니다. 산 너머 저쪽엔 파랑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힘차게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고동문의 말이다.

동문탐방

이호백(81음미)

본지는 갤러리PAL에서의 전시를 앞두고 있는 그림책 작가이며 그림책 출판사 '재미마주'의 대표인 이호백 동문을 만났다.



전시를 열게 된 계기는?

나는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어린이들을 만날 때 '어린이 책을 만드는 아저씨입니다'라고 나를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결혼 후 90년대 초 파리에서 아이와 함께 살면서 20세기의 위대한 그림책 작가들의 책을 보며 그림책 작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현하기 위해 출판사부터 만들기

로 하고, 1994년부터 2년간의 '길벗어린이' 운영팀의 경험을 살려 1996년 나의 독립된 출판사 '재미마주'를 창설하게 됩니다. 어린이 책을 만드는 모든 일에 즉, 기획자로 글 작가로, 또 그림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미마주의 모든 어린이 책 프로젝트에 관여해, 일찍이 1인 출판의 최고령 선배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책들은 2000년대 초에 뉴욕타임스,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박람회 등 여러 국제적인 기관의 어린이 책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책을 만드는 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무수히 많은 어린이 책 사이에서, 내가 만든 책에서만은 어린이가 마치 자신만을 위한 한 권의 화집을 접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을 담아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어린이와 소통하는 화가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진=왼쪽부터 뉴욕타임스 우수도서상 받은 그림책과 상패

미래 졸업 후 꿈의 실현 과정은?

미래를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꿈을 키우게 된 것은 대학 때 우연히 갖게 된 두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 1학년때 큰 매형이 도쿄의 한 서점에서 구해주신 20세기 유명 작가인 토미 응거러(Tomi Ungerer)의 그림과 반전 포스터, 광고와 잡지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모아놓은 화집 1권이었고, 또 하나는 대학교 2학년말에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영국의 작가인 찰스 키팅(Charles Keeping)의 인터시티(Inter-city)라는 글 없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런던의 서민들이 '인터시티'라는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서 내리는 일상의 모습과 장벽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책이었는데, 언젠간 나도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아직 꺼내야 할 작품들이 내 안에 많이 있기에 앞으로 신작을 더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너 권 더 나오게 된다면, 나를 작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썩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화정 실장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결혼 후 바로 파리에 가서 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장화정(삼성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자 겸 서울상상나라 학예실장) 실장은 그곳의 에스티엔드라는 고급 인쇄 문화 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어린이 책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땐 저는 어학을 마치고 파리 2대학의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 인스티튜트(IMAC)'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때 막연히 꿈꾸었던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 책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고적이며 같이 출판을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곳의 공공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문화가 우리에게 없음을 떠올리며, 한국에 돌아 가면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을 개척해보고 싶었습니다. 장화정 실장도 파리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 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한국에서도 파리의 라 빌레트(La Villette) 안에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이나 유제 인 에르브(Le Musée en Herbe)같이 예쁜 어린이 박물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둘이 분야는 좀 다르지만 당시 한국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두 축 '그림책'과 '어린이박물관'의 실무자로서 뛰어난 최초의 장본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책 만들기 현실은 어떤지?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그림책은 K-POP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책 만드는 기술과 능력은 월등히 우수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그림책의 원료인 종이의 질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림책의 발전은 눈부시게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림책과 같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매체가 존재하는 이유, 즉 그것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이 어린이 문화 속에서 자리 잡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K-POP이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밝은 청소년 문화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나는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집 가까운 공공장소에서 언제든지 춤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저렴한 형태의 배움과 문화의 공공적인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박람회(BCBF)의 일러스트레이션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20, 30대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엄청 많이 감상하면서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3명의 다른 심사 위원들이 지금의 일러스트레이션의 흐름에 큰 뜻에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멋진 일러스트레이션 선보다, 그림책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것은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이고 편안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은 그림 테크닉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이 시대에 더욱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기 평전 출간 김병기(교원 | 1916~2022)

김병기 전 모교교수의 평전 '바람이 일어나다. 한국현대미술의 프로메테우스 김병기의 삶과 예술'(김형국 저, 나남)이 지난 3월 15일 출간됐다. 1916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교수는 도쿄, 서울, 뉴욕을 오가며 동양과 서양, 추상과 구상을 아우르는 독보적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그림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실 밖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6.25 전쟁 때는 선우휘, 이용상과 함께 끊어진 대동강철교를 이어 피란민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전쟁의 실상을 왜곡한 피카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1953년부터 1958까지 모

교에서 예술론과 회화실기를 강의했다. 2019년에는 103세의 나이로 개인전을 개최하는 기록을 세웠고 2022년에 10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책 '바람이 일어나다'는 김교수 최초의 평전으로, 장욱진 교수 평전 '그 사람 장욱진'을 쓴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8년에 걸쳐 집필했다. 책 제목은 김교수가 청년 시절부터 좋아한 프랑스 시인 발레리의 시 구절 "바람이 일어나다. 살아야 한다"에서 따온 것이다. 저자는 김교수의 좌우명이었던 이 구절이 "그의 실존적 고뇌, 생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제36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김봉태(56회화)

김봉태 동문이 올해 제36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추상미술 1세대를 대표하는 김동문은 역대 최고령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김동문은 "(1960~1970년대) 한국 미술계를 주도한 모노크롬 화법을 따르지 않고 조형의 본질을 원색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 작업을 통해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그를 소개한 말이다. 그의 작업에서 원색의 색채는 사람들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북돋는 핵심 요소



이다. 최근 김동문은 버려진 상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스는 그에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남은 흔적들이다. 박스를 모아 계단 위에서 떨어뜨려 일그러진 형태를 사진으로 찍고 드로잉을 하고, 구성을 변형해가며 작업한다. 수상 기념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하는 작업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확인받은 기분"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한편 김동문은 오는 5월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작품 '에덴동산' 발표 서동희(66음미)

서동희 동문은 지난 3월 27일 미국 캔사스대학교(로렌스소재) 도예과 교수와 관계자들 그리고 도예과 학생들 앞에서 성경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내용(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창설 하시고 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거기서 네 개의 강이 갈라졌다.)을 도예기법으로 추상조각화한 자신의 작품 '에덴동산'을 발표했다. '에덴동산'에 대한 질의응답 후, 2부 순서로 계시록 4장의 '천국 풍경을 비디오투로 선보였다. 지난 3월 29일에는 캔사스대학교



스펜서 박물관에서 박물관 소장 서동문 작품(창세기 2장의 강 - 차주전자 유머 등) 전시가 있었다. 한편 서동문은 미국 캔사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자공예로 석사과정을, 미국미주리대학교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21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미국 뉴욕 마쿠스 후스후 주판 최고예술가상을 받았다. 35년 동안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공예 전공교수로 후학을 지도했으며 현재 바이블도자예술관에서 전시가 계속 진행 중이다.

토크 콘서트 '하늘을 보다' 서용선(75회화)

서용선 동문의 전시 '서용선프로젝트: 암태도' 연계 토크 콘서트 '하늘을 보다'가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용선프로젝트: 암태도'는 문화비축기지 시대와 문화사 기획전으로, 서동문의 작업 중 암태도 조각쟁의 연구에 집중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서동문과 김종길 미술평론가, 가수 하림을 초청하여 '서용선프로젝트: 암태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였다. '암태도조각쟁의(1923-1924)는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삶과 생존을 위해 조각인들이 주체가 되어 과도한 조각료를 인할 것



을 요구했던 사건으로 당시 주민들의 단결과 조직력을 통해 일제 강점기 지주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역사이다. 역사와 철학, 인간의 본성을 성찰적 주제로 담았던 서동문은 지난 2022년부터 암태도를 오가며 현장과 암태도 조각쟁의 주요 인물 연구에 몰입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시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더불어 '암태도조각쟁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성찰과 희망을 가수 하림의 음악과 함께 나눴다.

국립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취임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이 지난 3월 22일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에 재직해 온 허동문은 미술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등 4개 학과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온가장 책임자로 평가되어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소치 허련의 고조손, 남동 허건의 장손으로서 윤림산방의 화맥을 5대째 이으면서 독창적인 현대 한국화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묵사', '다중인간', '현대인 이야기', '익명



인간', '유목동물' 시리즈를 통해 시대와 역사와 문명 속에 있는 인간을 특유의 화풍으로 형상화해왔다. 1988년부터 600여 개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34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2015), 제19회 허백림미술상 본상, 제21회 용봉학술상(2017, 전남대학교), 제37회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2017) 등을 받았다.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 II 박도현(16디자인)

박도현 동문이 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 함께한 '민요프로젝트: 내일의 소리를 찾아서 II' 그림책이 발간되었다. 민요프로젝트는 향토민요를 재해석하고 내일의 소리를 찾는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동요 듀오 '술술'과 함께 '하늘, 땅, 바다'를 주제로 향토 민요 '별 하나 나 하나', '나무로다', '이여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박동문은 프로젝트의 그림과 영상을 맡아 각 민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동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민요와 함께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



는 '하늘, 땅, 바다' 그림책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도서관 및 유관시설에 배포되었으며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공식 누리집, 유튜브에서도 누구나 만날 수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블루메미술관, 서울옥션에서 인턴생활을 거쳐 현재 (사)에스아트플랫폼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또한 '거닐다디자인' 1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여러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체 호모 조영동(53회화 | 1933~2022)

조영동 동문의 기증작품전 '예체 호모'가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마포구 절두산순교성지 내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서 열린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조동문은 인간의 고뇌와 실존의 의미를 화폭에 담아낸 추상 화가로 이름을 알리고 목포교육대, 공주교육대, 미국 휴스턴대, 성신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2022년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후 조동문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작을 성신여대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나누어 기증했다.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박물관에 기증된 작품 196점을 선



보인다. 대부분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작품들로, 자화상인 '예체 호모' 시리즈 등 생명의 근원과 궁극에 대한 조동문의 탐구가 담긴 추상화가 포함되었다. 전시명 예체 호모는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요한복음 19:5)는 뜻이다. 가톨릭 미술에서는 수난을 겪고 처참한 모습을 한 예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인다. 박물관 측은 "조 화백의 예체 호모 안에는 미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 고통 받는 주님의 종인 예수의 자화상이 숨어 있다"라고 말했다.

지움과 비움 그리고 반추 조용익(54회화 | 1934~2023)

조용익 동문의 회고전 '지움과 비움 그리고 반추'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헤럴드옥션 광고센터에서 열렸다. 조동문은 우리나라 '단색화 1세대 작가'로, 박서보, 정상화, 김창열 등의 작가와 함께 한국 추상회화, 단색화 열풍을 이끌었다. 이번 전시는 조동문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작품 60여 점을 전시했다. 특히 1950년대 모교 재학 시절의 초기 수채화가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됐다. 조동문은 1934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작품의 주된 정서다. 전시는 조동문의 작



품을 시기에 따라 네 개의 범주로 나누고 차례로 '앵포르멜', '정화', '무심', '반추'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그의 일생과 작품을 소개했다. 전시를 기획한 정주아 헤럴드옥션 매니저는 "전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조용익 회화는 무심하고 소탈한 느낌이 강했고 70년 동안 작업을 놓지 않았던 열정적인 분이셨다"고 조동문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전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초기 수채화와 2010년대 최근 작품들"이라고 밝혔다.

Time on paper &... 심문섭(61조소)

심문섭 동문의 개인전 'Time on paper &...'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서울 중구 두손갤러리에서 열렸다. 심동문은 자신의 회화를 "드로잉에 의한 페인팅이요, 페인팅에 의한 드로잉"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이자 페인팅인 작품의 이중적 특성에 주목하여 신동문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테라코타와 조각에서 출발한 신동문의 작업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거듭하며 변화해왔다. 회화는 심동문 작업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한 줄기이다. 그는



"조각가의 수행처럼 반복적인 붓질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와의 같다"는 상상을 화폭에 펼쳐낸다. 동영 바다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상상의 세계를 동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옛날 기억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심동문은 2017년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심문섭, 자연을 조각하다'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소선 초대전 김소선(63조소)

김소선 동문의 초대전이 오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남 목포시 성옥문화재단 별관갤러리에서 열린다. 호랑이 화가라고 불리는 김동문은 우리 민화 속 전통의 호랑이를 그린다. 안치용 평론가는 저서 '안치용의 미술이야기'에서 김동문을 조명하며, "우리 전래의 민화를 유희하는 서양회화의 기법으로 소화하여 한국의 전통과 풍속, 그리고 모종의 민족적 정신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한 감각과 형식으로 승화한 것이 김 작가 호랑이 그림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인 내용을 세계적인 형식으로 융합하여 확장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표현의 영역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국전, 한국미술협회전 등의 단체전, 갤러리내일 초대전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가천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 교수로 활동했다.

호랑이 작가 김소선 초대전
The Invited Solo Exhibition by Kim So Sun

2024. 5. 2 Thu ~ 5. 14 Tue

성옥문화재단 별관갤러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
061-244-2527

후원광고



Growing 최인수(66조소)

최인수 동문이 참여하는 단체전 'Growing'이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까지 런던의 No.9 코크 스트리트에 전시됐다. 더페이스 갤러리가 주최한 이 전시의 참여작가는 최인수, 박석원, 윤상철 작가 3인이다. 더페이스 갤러리는 "이번 코크 스트리트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더 많은 해외 무대에 진출하여 예술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는 작가 3인의 작품을 통해 재료를 탐구 하면서 하나의 재료가 내포하고 있는 세계와의 연결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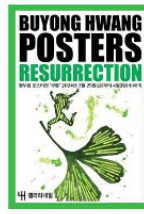


박석원 작가의 평면작업인 '적의(積意)'(2019-2023) 시리즈, 최동문의 '장소가 되다'(2021) 조각 시리즈와 '씨앗은 자란다 그리고 빠르게'(2018-2022) 드로잉 시리즈, 그리고 윤상철 작가의 '침묵시리즈'(2020)를 통해서 동아시아적 세계관 속에서 예술가가 재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짓는지를 보여주 고자 했다. 한편 최동문은 1977년 대학원 졸업 후 1983년에 독일 카를스루에 미술대학에서 연구했으며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박석원 작가의 평면작업인 '적의(積意)'(2019-2023) 시리즈, 최동문의 '장소가 되다'(2021) 조각 시리즈와 '씨앗은 자란다 그리고 빠르게'(2018-2022) 드로잉 시리즈, 그리고 윤상철 작가의 '침묵시리즈'(2020)를 통해서 동아시아적 세계관 속에서 예술가가 재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짓는지를 보여주 고자 했다. 한편 최동문은 1977년 대학원 졸업 후 1983년에 독일 카를스루에 미술대학에서 연구했으며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부활 황부용(69회화)

황부용 동문의 개인전 '부활'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구 갤러리내일에서 열렸다. 이 전시에서 황동문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완성한 회화 작품 750여 점 중에서 50점을 골라서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것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포스터의 원본이 되었던 작업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전시이자 그래픽디자인계에서의 활동을 회상하는 전시라고 황동문은 설명했다. 그는 1973년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33년간 그래픽디자인계에서 활



동하다가 2009년 전업화가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황동문은 2023년 봄부터 그 이전 13년간 추구해오던 '힐링 그래픽즘' 스타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회화를 시작해 현재 해외의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힐링 그래픽즘 스타일 구작의 포스터를 선보이며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조형적 뿌리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생명의 연가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의 실감미디어 상설 전시 '생명의 연가'가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공'에서 열린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 따르면 '생명의 연가' 실감미디어 전시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소장품에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인터랙티브 체험을 접목해 몰입감 높은 전시를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전시는 '탄생과 죽음, 그리고 침잠'이라는 테마를 주축으로 붉은 꽃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탄생을 통해 '숲은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격동



의 젊음을 지나, '송화분분(松花紛紛)'과 '풍죽(風竹)'에서는 침잠의 시간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번 실감미디어 전시는 작곡가 하림이 영상에 맞춰 사운드를 제작해 작품과 하나 될 수 있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양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 및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의 共鳴 III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이 오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도화현미술관 초대전을 갖는다. 중국, 명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동기창은 '화안에서 "독만권서 행만리로"라는 말을 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는 명언이다. 진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혹은 인생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 길을 여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시절 간송미술관 최원수 관장의 회론을 배울 때 이동문은 이 이론이 본인과 밀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책속의 여행과 공간 속의 여행, 과연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건



문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일까 고민했고 그 이후 긴 세월이 지났다. 이동문은 어릴 적부터 많은 곳을 뛰어다니며 놀던 아이였고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 분이 어머니시라고 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그녀의 여정 중 최근에 경험했던 몇몇 지역의 장면들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들 중 일부이다. 자연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 본 결과물이다.

후원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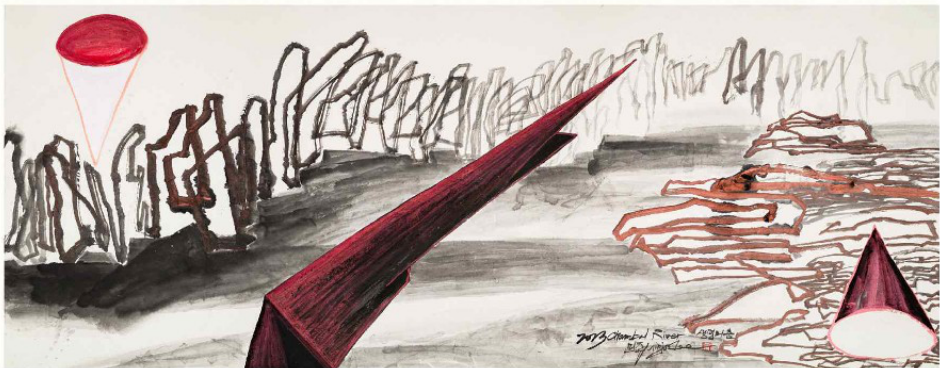
Minjoo Lee 61st Solo Exhibition

Resonance of the Void III 2024년 5월2일(목)-5월30일(목)

李珉柱 초대전 **공의 共鳴 III**

도화현 미술관
전남 고흥군 도화면
땅골로 860-5

www.dowhahun.com
061-832-1333



결핍의 풍경 정상곤(83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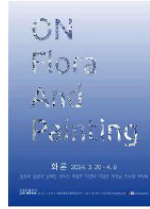
정상곤 동문의 개인전 '결핍의 풍경'이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경기도 파주 큐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는 정동문의 46번째 개인전이며, 201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제작한 '결핍의 풍경'을 주제로 한 유화 15점을 전시한다. 정동문은 풀, 나무, 바위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그리면서 그의 풍경화에 작가 자신의 개인적 서사 혹은 우리 사회에 깃든 어둠, 우울함, 슬픔 등의 감정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정동문은 모



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미술관(2021), 아트로직갤러리(2021), 통인육선 갤러리(2017), 사이아트 갤러리(2009)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최북미술관(2020), Studio Anise, 뉴욕(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2017), 서울시립미술관(2008), 국립현대미술관(2003), 예술의전당(200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On Flora and Painting 이창남(85서양) 외 9인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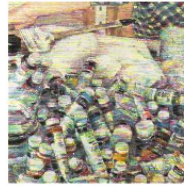
이창남, 한수정(86서양), 이광호(87서양), 이만나(89서양), 김정선(90서양), 이정은(90서양), 김제민(98서양), 신수진(99서양), 허보리(99서양), 김성국(04서양) 동문이 참여한 전시 'On Flora and Painting'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이화익갤러리의 첫 전시로, 4회째를 맞는 '화론' 전이기도 했다. 참여하는 10인 동문들은 꽃을 주제로 자신만의 조형언어와 예술관을 드러냈다. 그중 이창남 동문은 고유한 화풍과 색감으로 고전적인 회화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오랜 기간 꽃을 그려온



한수정 동문은 작품의 축적에 따른 작업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광호 동문은 습지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라나는 풀과 하얀 꽃을 그렸으며 이만나 동문은 벽에 납작 붙어 있는 '깊이 없는 풍경'인 담쟁이를 화면에 담았다. 김정선 동문은 짧게 피었다 지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한 표현기법으로 담아냈다. 이화익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10인 작가들의 자신만의 화법으로 풀어놓는 자연(꽃)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소의 사물 민재영(86동양)

민재영 동문의 개인전 '장소의 사물 Things in the Place'이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서울 성동구 레이블갤러리에서 열린다. 민동문의 작업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빈번한 생활 속의 단면을 드러낸다. 이는 특정한 순간을 포착하여 묘사하기보다는 반복되어 전형화된 일상의 단면을 재구성한 것이다. 민동문은 "일회성의 특수한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순간을 담은 찰나의 기억은 각자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서사(내러티브narrative)를 떠올리게 하는 촉매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거듭 누적되어 투사와 반주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우리 삶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익숙하고 반복되는 현상이나 주변을 다뤄왔다. 한편 민동문은 1998년 첫 개인전 이후로 거의 매년 개인전을 열 만큼 꾸준히 작업을 해 왔다.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0기 장기 입주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토끼展 이호백(81음미)

이호백 동문의 그림책 원화전 '토끼展'이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신사동 갤러리PAL에서 열린다. 이동문은 그림책 작가이자 출판사 재미마주의 대표다. 재미마주는 1994년에 이동문이 설립한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로, 이번 전시는 재미마주 설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동문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전시와 함께 오는 5월 3일과 8일에는 아티스트 토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파리 제2대학 커뮤니케이션·이미지 인스티튜드에서 수학했다. 이후 고려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를 취득했다. 대표작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는 뉴욕 타임즈 '2003 최우수 그림책(Best Illustrated Books)'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스웨덴 어린이 도서협의회에서 피터팬상을 받았으며, 전세계 1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이동문의 그림이 들어간 '비빔밥 Bee Bim Bop'(린다 수 박 글, 2005)은 지금도 미국의 그림책 스테디셀러이다. 이외에도 이동문의 저서로 '세상에서 가장 힘 센 수탉'(1997), '한글이 된 친구들'(2008), '토끼탈출'(2019) 등이 있다.

토끼展

이호백 그림책 원화전

2024.4.30 - 5.18

*5.12 - 5.13 휴관

이호백 아티스트 토크

2024.5.3 11:00 - 12:30

2024.5.8 11:00 - 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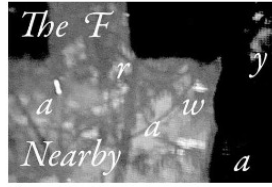
갤러리 Pal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우원광고

The Faraway nearby 이경림(86동양) 외 7인

이경림 동문이 참여한 릴레이전시 'The Faraway nearby'가 AIR 갤러리에서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시아 여성 예술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의 경험을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작가 8명은 5개월 동안 다른 아티스트를 대화 파트너로 초대하여 원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공유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동문은 서지현 작가를 초대했고, 드로잉, 입체, 골판지 조각, 평면 작업등을 출품하였다. 이동문



은 뉴욕에서 작업하는 여성작가로서의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고 있다. 특히 엄마로서의 내적인 갈등과 성숙의 이야기를 '케노시스의 이야기'로 비약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정물을 묘사한다. 한편, 이동문은 2004년 첫 개인전부터 골판지를 소재로 한 작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도미한 이후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Yesterday is Tomorrow 이광호(87서양)

이광호 동문의 개인전 'Yesterday is tomorrow'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 까지 리안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전시명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상충되는 시간성을 등치시켜 버리는 반면, 전시가 보여주는 신작(내일)과 구작(어제)의 관계 설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디졸브 시리즈'는 구작이 오버랩 되는 신작이라기보다는 구작이 오버랩 되지 않는 신작이어서, 재료 면에서는 과거의 연속이지만, 기법 면에서는 단절에 가까운 방향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동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실이 분실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전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빛소리 때문이다. 지하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디졸브 시리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채집한 것으로, 이른바 '프로세스'에 대한 진술을 중시하는 동시대 미술의 가치기준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과 경험의 매개라는 의미가 포개져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판화과를 졸업했으며, 조현화랑(2011), 국제갤러리(2010), 갤러리엠(2008)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소녀와 레후아 김상경(87서양)

김상경 동문의 초대전 '소녀와 레후아'가 지난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중로구 페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에서 김동문은 '소녀와 레후아와 붉은 새(2024)를 비롯해 하와이, 제주도 등지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을 선보였다. 김동문은 그동안 레후아 등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풍경화를 주로 그려왔다. 하와이의 토종 식물 레후아는 용암이 굳어진 암석 지대에 맨 처음 싹을 틔우는 꽃이다. 이번 전시는 풍경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녀, 소년을 풍경의 화자로 등장시킨다. 관람자를 정면에서 응시하는 소녀와 소년은 신비로운



동양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 작품 속 소녀의 모티프는 김동문의 어린 딸로, 10여 년 전 작가의 수술을 앞두고 병실을 찾은 어린 딸의 조용하면서도 심각한 표정을 담고 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마주친 딸에 대한 기억, 분출하기 직전 화산의 긴장감 등은 김동문의 작품 세계를 추동하는 이미지다. 그는 낮과 밤, 현실과 허구, 또는 삶과 죽음 사이 아슬아슬한 줄다리를 흘러넘치는 색감과 강렬한 이미지로 작품에 담아 풍경 너머의 '충만한 본질'을 탐색한다.

풍경 Incorporeal Landscape 정주영(88서양) 외 2인

정주영 동문과 김민정, 도유희 작가의 전시 '풍경 Incorporeal Landscape'이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갤러리현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현대의 프로젝트 '에디션 R' 중 첫 번째 전시이다. '에디션 R'은 갤러리현대 소속 작가의 과거 작품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미학적 성취를 재조명하여 작품의 생명을 과거에서 현재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전시는 김민정, 도유희 작가, 그리고 정동문의 초기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



이라는 대상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심미적인 풍경으로 형상화한 김민정 작가의 작품, 비가시적인 인식에서 시작하여 실체를 인식하는 도유희 작가의 내적인 풍경, 이미 선택되어 변용된 풍경을 다시 선택하고 변용함으로써 풍경이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도전하는 정동문의 풍경까지, 세 작가가 마주했던 각각의 '풍경'을 소개한다.

야간항해 김호준(92서양) 외 1인

김호준 동문과 조은주 작가의 전시 '야간 항해'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 까지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를 연 김동문과 조은주 작가는 두 아들을 둔 부부사이이다. 김동문은 풍경과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회화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반 구상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은주 작가는 낯선 풍경과 사물의 결합을 통한 초현실적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성향 만큼이나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화풍과 내용, 결과물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결합이다. 이번 전시에는 두 작가가 다루는 소재가 항상 물과 연관



되어 드러난다는 데서 연결고리를 잡고 전시테마를 정하였다. 조은주 작가에게 물은 바다로 대변되는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대상이고, 김동문에게 물은 자연 순환의 매개물이자 사람의 마음에 담긴 매개물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화천미술관(2023), 토포하우스(2022), 아트스페이스 켈리아(2021)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아티테인 갤러리(2023), 백해영갤러리(2021), 스퀘어루트 갤러리(2021)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Five Acts 홍영인(92조소)

홍영인 동문의 개인전 'Five Acts'가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영국 브리스톨의 스파이크 아일랜드에서 열린다. 홍동문은 이번 개인전에서 움직임과 소리, 여타 비언어적인 표현을 아우르는 테이프스트리, 조각,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본 전시의 주요 작품 'A Performance for Five Acts'는 총 길이가 40미터에 달하는 지수 커미션 작업으로, 1919년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 경제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이 노르만의 바이외 테이프스트리 형식을 빌려 길게 수놓아져 있다. 작품의 주변에



는 동물원의 동물 장난감 같은 나무와 직물 조각이 설치됐고,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5명의 퍼포머가 자수에 담긴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즉흥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외에도 서식지를 공유하지 않는 동물들의 신발을 짚으로 묶어 흰 모래 위에 올린 'Rings of Animals' 등의 출품작을 통해 여성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대를 탐구한다. 한편, 홍동문은 현재 영국 바스미술대학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새와 개의 노래 박종호(99서양) 외 1인

박종호 동문이 참여하는 2인전 '새와 개의 노래'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내밀한 감정의 상태로 그리며 임춘희 작가와 유년의 기억과 인간성의 단면을 폭로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박종호 동문이 함께 만든 전시다. 전시명 '새와 개의 노래'는 이 두 화가의 세계를 각기 새와 개로 이름 짓고 그들의 그림을 노래에 비유한 것이다. 두 작가는 자신이 영토 위에 각자의 세계를 세운 중진 작가들로, 젊음의 반짝임을 뒤로 하고 시간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남은 이들이다. 화가가 20년 이상을 지켜온



붓질은 화가의 삶과 서서히 동기화한다. 일반적으로 '붓질'을 붓의 움직임 (brushstroke)으로 한정하지만, 그 범위를 색채로까지 넓혀본다면 우리는 '그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화면 앞에서 한 인간의 세계와 조우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 한편, 박종호는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갤러리 그리다(2013), 갤러리 LVS(2009), 토포하우스(2008)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선망의 방향 김초윤(03동양)

김초윤 동문의 개인전 '선망의 방향'이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도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선망' 시리즈는 거북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선망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본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액정 너머의 세계를 영원하는 사람들과 달리 거북이는 물의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생물이다. 작품에서 거북이는 물과 물을 연결하는 객체로 존재하며 두 가지 장소에 모두 다다를 여지를 보여준다. 김동문은 비단을 활용하여 작품의 속성을 곱고 부드럽게 하면서 물과 물의 경계를 투명한 안



료로 포개어 채색한다. 비단 위에 덧대어진 염료는 정교하고 균일한 화면을 이끌어내며 담체의 정수를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선망의 방향을 상징하는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감상자에게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갤러리도스의 최서원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서 거북이에 스스로를 투영하여 내가 오랫동안 선망해 온 대상을 원하는 만큼 떠올려 보고 긍정의 열망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시를 소개했다.

BACK AND FRONT 김종규(06동양)

김종규 동문의 개인전 'BACK AND FRONT'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본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기존과는 다른 시도의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이전까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자연 형상을 그려왔지만, 줄곧 사실적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이번 신작은 단순한 면 분할의 비구상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에서 추상으로의 전환은 사실적 묘사가 주는 시각적 한계를 넘어 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동문은 복잡한 형상의 단순화와 과감한 생략을 통해



순수한 조형 세계를 탐구하며 사유가 깊고 명료한 풍경을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김동문의 신작인 'Part of Memory'는 기억에 대한 표현으로 자연에 대한 인상과 기억들을 토대로 재구성된 작업이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기억은 전체적이고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부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본화랑(2022), 한원미술관(2022)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였다.

We Go 권현빈(10조소)

권현빈 동문의 개인전 'We Go'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산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미 완료된 듯 보이는 대상들의 움직임을 상상한다. 이때의 '우리(We)'는 조각을 둘러싼 여러 주체를 포함하며, '움직임(Go)'은 조각이 담보하는 여러 종류의 운동성을 지시한다. 권동문은 자신의 조각이 물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안내한 길을 좇아 함께 한 시간의 흔적이라 여긴다. 권동문에게 시간의 적층이 뒤엉킨 돌에 이 같은



조각적 행위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완결로 도달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작아지며, 틈새를 통해 나아가는 상태를 예고한다. 한편 권동문은 '두산아트림 전시 2019: Part 1'(2019, 두산갤러리, 서울)에 선정되었으며, 갤러리 기체(2021, 서울), 모노하(2020, 서울), 에이라운지(2019, 서울), 레인보우큐브(2018,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일어나 2024년이야! 류성실(13조소) 외

류성실 동문이 참여하는 단체전 '일어나 2024년이야!'가 지난 3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백남준 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류성실x버밍타이거와 백남준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과거의 장면들을 통해 현재를 마주하고자 한다. 1980년대 위성은 냉전의 산물이자 거대한 국가적 자본을 투입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결정체로,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몇몇 방송국과 나사(NASA) 정도였다. 그러나 백남준은 위



성 방송 시스템을 대륙 간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 구상했고, 여러 협업자들과 예술로 소통하며 이를 실현했다. 전시는 현재를 연결의 기술이 정점에 이른 인공지능 시대로 진단하고 40년 전 백남준의 위성 예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세계 평화의 가치에 다시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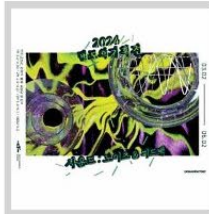
사운드 : 노이즈&피드백 한재석(14졸조소) 외 1인

한재석 동문과 고정균 작가의 전시 '사운드: 노이즈&피드백'이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옥상팩토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기계장치가 녹음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노이즈)에 주목하고, 노이즈캔슬링 된 자연의 음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의 영역에서 배제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노이즈를 전면으로 가져와 사운드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사운드 관련 예술에 대한 담론과 전시 형태의 나아갈 방향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고정균 작가와 한동문이 총 3부로 구성된 릴레이 전시에서 각각의 전시와 공동작업, 퍼포먼스를 통해 '사운드'에 대한 개념을 고도화한다. 두 작가는 사운드가 발원하는 시각적인 매체 혹은 주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노이즈와 피드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사운드 개념을 제시한다.

5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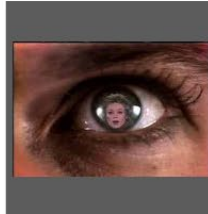
사운드: 노이즈&피드백
한재석(14졸조소) 외 1인
3.2-6.2
옥상팩토리



장옥진의 황금방주
장옥진(교원)
3.12-6.9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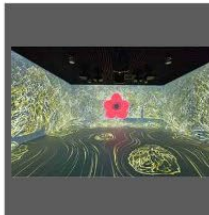
정물
한운성(65회화)
3.19-5.18
AD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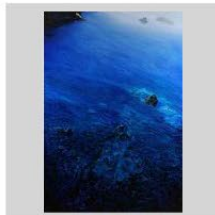
일어나 2024년이야
류성실(13조소) 외 2인
3.21-25.2.23
백남준아트센터 제 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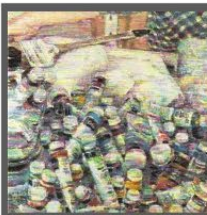
에체 호모
조영동(53회화, 1933-2022)
3.23-7.28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생명의 연가
김병중(74회화)
4.2-12.31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바다와 남자
공성훈(83서양, 1965-2021)
4.2-6.1
선광미술관



장소의 사물
민재영(86동양)
4.3-5.9
레이블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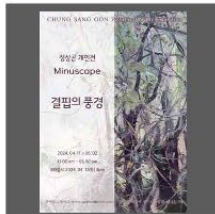
MAN
노진아(94조소) 외 1인
4.3-6.9
공간형



시공時空 시나리오
서도호(81회화) 외 11인
4.4-7.7
서울시립미술관



어떤 변화
정진서(98조소) 외 4인
4.5-6.16
김중영미술관



결핍의 풍경
정상곤(83서양)
4.11-5.2
큐아트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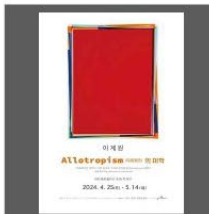
용 룡
손동현(98회화)
4.11-5.11
갤러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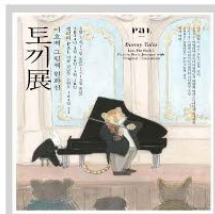
파트너스 데스크
홍승혜(78회화) 외 1인
4.12-5.18
디스위켄드룸



적
유현미(83조소)
4.22-5.24
갤러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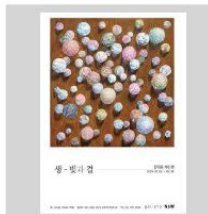
Allotropism의 미학
이계원(84서양)
4.25-5.14
아트레온갤러리



토끼展
이호백(81디자인)
4.30-5.18
갤러리Pal



김소선 초대전
김소선(63회화)
5.2-5.14
성옥문화재단 별관갤러리



생 - 빛과 결
김덕용(81회화)
5.2-5.31
갤러리아우



공의 共鳴 3
이민주(76회화)
5.2-5.30
도화현미술관